

손님이 라면 끓이는 식당...중기 제품 시연회 여는 노래방

'3품 시대' 자영업자 눈물겨운 생존 백태

'수익이 적은 메뉴 없애기', '비는 시간대 매장 대여', '손님이 직접 해 먹는 셀프음식', '직접 모델로 나서 SNS홍보'.

고물가·구인난·불황 등의 '3고(苦)'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가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탓에 새로운 영업 전략으로 매출부진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상무1동의 닭요리 전문점에는 기존의 '소(小)자 메뉴를 찾아볼 수 없다.

'중'자와 '대'자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구인난과 고물가 때문이라는 것이 업주의 설명이다. '소'자를 준비하려면 닭과 재료를 더 소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갈수 밖에 없는데 주방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중'자 부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주는 "고물가 상황에서는 '중'자 이상 팔아야 겨우 이익이 남는다"면서 "손님한테 선택권을 빼앗는 꼴이지만, 갖가지 식재료 가격이 오르다보니 '소'자를 팔아봤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해장국 전문점에서는 손님이 직접 달걀 프라이를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다. 버너와 프라이팬, 달걀과 오일이 한쪽 코너에 준비돼 있다.

이 가게 외에도 손님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거나 누룽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한 식당까지 등장했다.

한 식당 사장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해 하는 손님이 많다"면서도 "기준에는 손님이 올때마다 손님 수만큼 일일이 달걀프라이를 만들었는데 인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귀띔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게 대출이자가 늘어나자 가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곳도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밤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은 새로운 영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닭요리 전문점 구인난·고물가에

남는 게 없는 '소자 메뉴' 없애고

노래연습장, 낮 영업 방법 고심

옷가게 사장, 직접 모델로 나서

구일암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시지회장은 "주로 밤에 즐겼던 노래연습장을 생일파티 등 다양한 용도로 낮에도 즐길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며 "특히 낮 시간대에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는 방안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총장로의 옷가게들도 상권 쇠퇴속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사장이 직접 매장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온라인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로에서 7년째 옷가게를 운영중인 최모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옷을 보기 때문에 인스타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델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직접 매장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게 사장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옷 사진 정도는 올려야 고객들이 보고 찾아온다"면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장의 옷을 판매해야 겨우 월세라도 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종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총장로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을 함께 팔던 대형 옷가게는 약 3주 전부터 남성복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업주는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남성복이 다른 가게 남성복과 큰 차이가 없어 하나에 집중하기로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수상작 한자리에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최한 '제3회 신문사랑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11월~13일)가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13일 오후 한 가족이 당선작을 보고 있다. 광주일보는 2022년도 지역신문활용교육 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광주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결정했다"면서 "수요가 적은 남성바지, 셔츠, 신발 등의 코너를 없애고 매장 전체를 여성복 전문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은실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고물가, 구인난 등 복잡한 경제상황 속에서 완벽한 하나의 영업 전략은 없다"며 "다른 사람의 판매 전략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흑산도 바다서 규모 2.1 지진...열흘새 두 차례

10일 사이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두차례 지진이 발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낮 12시17분께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북위 35.07도, 동경 125.0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1 수준으로 지진계에 기록이 남지만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세기다.

규모는 진앙지에서 생긴 지진의 크기를, 진도는 지진이 지구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척도다.

소방 당국에 지진 관련 피해나 흔들림 감지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36분께도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101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감지됐다.

지진의 진앙은 북위 35.47도, 동경 124.90도다. 발생 깊이는 10km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비교적 약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 진동 감지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두차례 잇따라 발생한 것이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4.1 지진의 여파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AI 검출...전남 농가 '긴장'

(조류독감)

고병원성 여부 검사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올 들어 처음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과 지역 축산 농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금호호·영암호 등 지역 내 철새도래지가 적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산지인데다, 닭 사육 농가도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점에서 유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고니 폐사체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라 일대 탐방로를 폐쇄하는 등 선제

적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최종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5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 검출지 주변 탐방로를 폐쇄하는 한편, 군 소독차량과 살수차를 동원해 주변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또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를 특별방역 관리지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 11개 닭·오리 농가에 대한 선제적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11개 농가가 닭(29만1000마리·7농가), 오리(5만3000마리·4농가) 등을 사육중으로, 이들 농가의 경우 엄격한 검사·승인 절차를 거

쳐 입식·이동 등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아울러 강진지역 가금류 사육농가(24개 농가·117만 마리 사육중) 뿐 아니라 전남지역 모든 가금 농장(604개 농가·2755만 마리 사육중)에 문자로 AI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예방 강화를 요청했다. 축산 차량과 사람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24개소) 및 농장초소(50개소) 운영도 강화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7개 사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2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태로, 전남에서는 강진만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만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5·18민주광장 분수대 26일 운영 종료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오는 26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마감한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6월부터 개막한 1980년 5월 군중이 손에 들었던 햇볕을 형상화한 작품인 '빛의 분수대'가 앞으로 4번의 공연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빙판길 낙상 방지 및 동파 예방을 위해 분수대 운영을 멈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개막한 빛의 분수대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15분부터 40여분간 미디어아트 정기

공연을 펼쳤다. 11월까지 3만여명의 관람객이 집계됐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4차례 남은 공연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부친과 추억을 허밍(Humming)으로 표현한 권지안(예명 솔비) 작가 등의 작품과 함께 다양한 시그니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재운영에 들어가는 내년 3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광장문화 조성과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64 - 9190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